

코스닥 지각변동... 바이오株 추락, 장비·소재주 대약진

신라젠 등 2곳, 시총 10위 밖으로
케이엠더블유 등 IT 2개주 진입
“삼불화질소 등 매출 증가할 것”

바이오주가 잇따라 악재로 폭락하면서 IT 장비·소재기업 등 IT주가 다시 그 자리를 대신해 급부상하고 있다.

코스닥지수 7월 폭락 이전인 지난 6월 제약·바이오주는 시가총액 10위 중 셀트리온헬스케어(1위)·신라젠(3위)·헬릭스미스(4위)·메디톡스(6위)·에이치엘비(7위)·휴젤(9위)·셀트리온제약(10위)로 7개 기업이 포진돼 있었다. 반면, IT주는 10위권 내에서 게임주인 펠어비스 1개 기업에 그쳤다.

반면 지난 3일 증가 기준 코스닥 10위권에는 신라젠과 셀트리온제약이 밀려난 대신 IT주 중 케이엠더블유와 SK머티리얼즈가 이름을 올렸다. 5G 기지국

장비 및 부품업체인 케이엠더블유는 지난 6월 시총 11위에서 4위로,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업체인 SK머티리얼즈도 12위에서 7위로 순위가 올랐다. 또 게임주인 펠어비스는 극심한 코스닥 시장 부침 속에서도 시장 5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이오업체의 주가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주가 등락이 덜한 IT 종목의 시총 순위가 상대적으로 오른 영향도 있다.

IT 종목 중 케이엠더블유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지난 6월 27일 증가 4만2100원에서 3일 증가 기준 7만3300원으로 74.11%나 올랐다. SK머티리얼즈도 같은 기간 주가가 14만8200원에서 17만8700원으로 20.58% 상승했다.

또 11~20위권에서 IT 장비 및 부품주의 상승세도 눈에 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업체인 솔브레인이 주가 상승으로 37위에서 14위로 순위가 경중뛰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원익IPS도 20위에서 15위,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 에스에프에이도 14위에서 12위로 시총 순위가 상승했다. 솔브레인의 6월 27일 증가는 4만7400원에서 3일 6만8500원으로 44.51%가 올랐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상승을 주도한 IT주는 일본 수출 규제에 의한 국산화 수혜주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고 수출심사가 강화되면, 일본 의존도가 80% 이상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공정 장비와 반도체 장비에 대해 국내업체가 국산화를 진행할 것”이라며 소재 국산화 예상업체로는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한솔케미칼을, 장비 국산화 예상업체로는 ▲에스에프에이 ▲원익IPS를 꼽았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SK머티리얼즈에 대해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불화수소 개발의 성공 가능

성이 높다”며 “2020년 5세대 네트워크가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와 OL ED 업황이 개선되면서 NF3(삼불화질소) 뿐 아니라 신성장 제품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익IPS와 솔브레인은 장비·소재 국산화 이슈로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원익IPS는 반도체 열처리 장비, 디스플레이 식각 장비 등 시장에서 일본의 도쿄일렉트론(TEL)이나 고쿠사이 일렉트릭과 경쟁하고 있으며, 고객사 내 점유율도 높아 국산화 이슈로 투자자 관심이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 연구원은 “솔브레인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은 각각 1767억원(영업이익률 16.8%), 1890억원(17.5%)으로 예상돼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며 “최근 주가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매출 성장 둔화와 소재 국산화 가능성

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하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향후 3년간 연평균 1900억원 내외 영업이익의 달성과 영업이익률 17.4%가 추정돼 안정적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5G 설비투자 확대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5G 장비주도 증권사들의 추천주로 꼽히며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올해 8조2000억~8조5000억원까지 시설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5G 대장주인 케이엠더블유를 비롯한 5G 통신장비업체 및 부품·소재업체의 수혜가 지속될 것”이라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커버리지 확대가 지속됨에 따라 케이엠더블유가 삼성전자 및 노키아에 제품을 공급하는 등 수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남양주 미분양 80% 급감 이유는?... GTX 영향

교통환경이 ‘미분양’ 결정

수도권 미분양공공주택 미분양 8793가구→7853가구로 줄어
감소율 남양주 80%, 용인 78%
미분양 해소 공통점 ‘교통 개선’

2017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수도권 내 미분양 공공주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미분양 공공주택 주택수는 8793가구에서 7853가구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남양주시(감소율 80.1%) ▲용인시(77.7%) ▲광주시(60.4%), ▲김포시(56.8%) ▲구리시(55.7%)순이다.

2017년 말 남양주시의 미분양 가구 수는 2044가구에서 지난 6월 407가구까지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평택시는 837가구에서 2066가구로 크게 늘었다.



경기도 남양주 ‘e편한세상 평내’ 조감도.

아파트 미분양 해소지역의 공통점은 교통환경 개선이다. 먼저 남양주는 평내호평역에서 서울 중구 및 영등포를 거쳐 인천 송도까지 이어지는 GTX-B노선이 확정되면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 해소됐다. 이와 함께 평내호평지구에는 1만2000여가구 공급과 함께 도시정비사업 및 협동산업단지 조성 등이 계획돼 있다.

용인에서는 대장지구와 판교신도시를 연결하는 서판교터널 2020년 완공

및 동백~GTX용인역(가칭)~성북역~신봉동 등을 연결하는 15km 구간의 신교통수단(경전철 포함)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다. 광주도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오는 2022년 일부(서울~안성 구간) 개통 예정이며, 지난달 초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향후 경기광주역에서 수서역(3호선과 분당선, SRT정차)까지 12분이면 달을 수 있게 된다.

김포는 김포도시철도가 하반기 개통되며 구리는 8호선 연장선 구리역이 신설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교통호재나 개발 계획에 따라 미분양 무덤이었던 곳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미분양 물량 급감지역인 남양주에서는 지난달 (주)삼호가 ‘e편한세상 평내’ 1108가구 중 247가구를 일반분양 중이다. 단지 인근으로는 도보 10분 거리에 경춘선(ITX) 평내호평역이 있다. 사업지 인근에 있는 평내IC와 동호평IC를 통할 수 있다.

이밖에도 8호선 연장선 별내역이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이며, 진행이 확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의 수혜가 기대된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포스코건설이 공급하는 ‘오포더샵 센트럴포레’ 59~84㎡ 1396가구, 김포 마송에서는 대림산업이 김포 마송지구 B-6블록에 ‘e편한세상 김포로알하임’ 66·74·84㎡ 574가구를 분양 중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KB자산운용, 베트남 호치민사무소 오픈

싱가포르·상하이 이어 세번째

KB자산운용은 지난 3일 베트남 호치민 롯데호텔에서 현지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싱가포르 현지법인, 2018년 상하이 현지법인에 이은 KB자산운용의 세 번째 해외진출이다.

사무소의 공식명칭은 ‘KB자산운용 베트남 대표 사무소’다. 사무소장은 올해 5월 영입된 서호창 상무가 맡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KB자산운용 조재민, 이현승 대표이사, 서호창 사무소장, 김영성 글로벌운용본부장 등을 비롯해 응우옌 득 호안(Nguyen Duc Hoan) KB증권 베트남법인(KBSV) 대

표 등도 참석했다.

‘KB자산운용 베트남 대표 사무소’는 베트남 현지에서 발로 뛰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신규상품을 개발하고 추가사업 기회를 찾는 예정이다.

조재민 대표는 “싱가포르, 상하이 법인에 이어 베트남 사무소 설립은 글로벌 운용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진출을 위해 현지운용사 제휴나 인수가 아닌 사무소 형태로 출발하게 됐으며 향후 독자 운용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승 대표는 “이번 사무소 개소를 통해 인구조조와 산업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닌 베트남 시장에서 다양한



KB자산운용은 지난 3일 베트남에서 KB자산운용 베트남 사무소 설립 기념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KB손해보험 호치민 사무소 손상재 소장, KB증권 베트남 법인 응우옌 득 호안(Nguyen Duc Hoan) 대표, KB자산운용 이현승 대표, KB자산운용 베트남 사무소 서호창 소장, KB자산운용 조재민 대표, KB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김영성 본부장, KB국민은행 호치민 지점 김중관 지점장. /KB자산운용

대체투자 기회 발굴을 통해 글로벌 사업확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8개의 현지법인(KB증권, NH투자증권 등), 11개의 현지

사무소(한국투자신탁운용 등)가 진출해 있고, 2개사가 현지 운용사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증권 다이제스트



키움증권 연 3.2% 신종자본증권

키움증권은 세전 연 3.2%로 BNK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을 판매한다. BNK금융지주 제6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신용등급 AA-(한국신용평가·2019.08.12), 연 수익률은 세전 연 3.2%로 키움증권은 발행금리 그대로 판매마진 없이 판매한다.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2024년 8월 30일 이후 발행사가 중도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을 주력자회사로 두고 있는 순수 금융지주사로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자회사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투자를 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교보증권 7일 해외선물 투자 세미나

교보증권 국제선물부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사 19층 비전홀에서 해외선물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압구정 미꾸라지로 유명한 윤강로 KR인베스트먼트 회장이 ‘레전드가 들려주는 해외선물 두 번째 이야기’ 주제로 진행한다. 이날 해외선물 개요부터 변동성 매수매도 전략, 위험 및 자금관리, 실전매매전략 등 폭넓은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에 한해 교보증권 해외선물계좌 보유 고객이면 누구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교보증권 국제선물부로 하면 된다. /손영지 기자